

김제 벽골제 마지막 수문 석축시설 확인

제5수문 유통거 추정지 시굴조사 결과... 2023년 정밀발굴조사·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추진

김제시 벽골제이리방사업소에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김제 벽골제 제5수문 유통거 추정지 시굴조사' 결과 제방의 남쪽 끝부분에서 유통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석축(石築)시설이 확인되었다.

김제 벽골제 제5수문은 총 5기로 제방 가운데 3기의 배수문(排水門)과 남-북 끝단에 각각 2기의 여수로(餘水路)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수로는 저수지의 수위가 일정량 이상이 되었을 때, 여분의 물을 배수하기 위한 수로를 말한다. 유구는 현 지표 0.8~1.0m 아래에서 동서 길이 약 40m 상단으로 도수로(導水路)인 석축(石築)시설과 도수로(導水路)를 보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적석(積石)층이 확인되었다. 정확한 규모는 향후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벽골제 유통거 추정지 조사 전경.

수문의 위치 확인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김제 벽골제의 완전성과 진정성 확보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전준미벽골제이리방사업소장은 이번 추정 유

통거 추정지 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정밀발굴조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수여거 조사 지역까지 포괄하여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부채문화관, 엄재수 선자장 초대전 개최

전주부채문화관(관장 이항미)이 특별기획전으로 엄재수 선자장 초대전을 마련했다. 이번 초대전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선자장인 엄재수의 신작 전시로, 조선시대 유물을 바탕으로 제작된 접부채 52점이 소개된다.

이에 따르면 '2022 再會2-조선의 선(線, 線)다시 만나다'는 접부채의 제작 기법과 곡선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다. 엄재수 선자장은 사진 자료와 유물을 기반으로 조선시대 접부채가 가진 선(線)의 아름다움에 주목했다.

접부채는 크게 손잡이 부분인 선두(線頭), 몸체, 끝부분인 선미(線尾)로 나눌 수 있다. 각 부분마다 다양한 선(線)이 존재하고 하나의 접부채는 선(線)의 흐름으로 완성된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한편 엄재수 선자장은 유물과 기록으로만 남아 있던 부채의 다양한 기법을 연구해 현대적으로 재현하고 재해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전주한옥마을 내에 미선공예사와 부채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13~24일까지 전주부채문화관 지선실에서 진행된다. 관람료는 무료다. 특히 전주부채문화관은 SNS를 통해 온라인 전시도 진행한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전통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한벽문화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통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14일까지 교육 참여자를 모집하며, 교육비는 무료다.

이는 '2022년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작년에 첫 선을 보인 '규방공예' 프로그램이 참여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어 올해는 '전통매듭' 프로그램을 추가로 기획했다.

교육은 오는 17일 시작해 각 기수마다 총 20명을 대상으로 15주의 수업이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한벽문화관 내 전주천을 병풍처럼 조망하는 너른 창이 난 별 좋은 좌식 교육실에서 이뤄진다. 규방공예는 바느질 작품 하나를 짓는 것처럼 내 삶을 지어 나간다는 주체적 만족감과 정서적 힐링을 함

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매듭은 가닥을 하나로 맺고 엮어 한 작품이 탄생하듯 타인과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의 아름다움에 대한 은유로 다가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백옥선 대표는 "규방공예와 전통매듭은 아름다운 우리 문화를 계승하면서도 복잡하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손작업이기에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 도시에 사는 시민들에게 은근과 끈기를 되새기며, 아름다운 우리나라 전통의 오방색을 마주하면서 삶의 다채로움을 음미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그간 시민들의 예술 활동 감증을 해소하는 한편, 삶 속의 예술로서 스며드는 전통문화 확산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전주도원도' '부안유람도와 변산기행' 상영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전주도원도'와 '부안유람도와 변산기행' 실감영상 두편을 박물관 2층 로비에서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상영한다고 밝혔다.

실감영상은 문화유산을 활용해 교육·여가·휴식·체험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박물관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가로 15m, 세로 4m의 대형 LED월로 설치됐다.

이에 따르면 '전주도원도' 영상은 18세기 전주를 오얏꽃과 복사꽃 가득한 모습으로 그린 '전주지도'를 모티브로 어느 봄날의 태평하고 기쁨 넘치는 도시, 전주를 표현했다.

두 번째 영상은 내변산에 속하는 우금암과 직소폭포 더불어 외변산 끝자락 채석강의 절경과 일몰까지 강세황과 함께 변산 유람을 떠나는 컨셉이다.

/장은성 기자

온가족 함께 즐기는 뮤지컬 '봄날의 꿈'

김제문화예술회관, 28일 진행

김제문화예술회관이 오는 28일 오후 2시 대공연장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족 뮤지컬 '봄날의 꿈' 공연을 개최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두 번째로 준비한 이번 공연은 2008년 웅진 주니어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한 송미경 작가의 순수함과 동심이 가득한 원작을 무대화한 작품으로 2020년 초연 이후 예매처 평점 만점을 기록한 대학로 대표 뮤지컬이다.

항상 조용하고 지루하던 교실에 전학생 꿈이 나타나면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그리는 '봄날의 꿈'은 특히, 공연 전반을 이끌어 가는 거대한 꿈은 어린이 관객들이 공감포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공연에 몰입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되어 생동감을 더하며 재즈 분위기의 경쾌한 음악과 아기자기한 무대 연출까지 아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제문화예술회관은 시민 안전을 위해 방역 소독 등 공연장 방역 수칙 준수를 강화하고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입



장이 금지된다.

관람권 예매는 5월 17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풍시 선착순 구매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웃음·흥겨움 가득 '놀이길 굿마당'

전라좌도진안중평굿보존회, 창립 30주년 맞이 14일 남부 마이산 일대에서 진행

진안군은 전라좌도진안중평굿보존회(회장 이승철)가 오는 14일 남부 마이산 일대에서 놀이길 굿마당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존회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코로나로 지친 군민과 진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위로와 흥겨움을 선사하고, 웃음과 흥겨움이 가득한 굿마당으로 함께 어울릴 마당이 될 수 있도록 굿마당을 열고자 한다.

전라좌도진안중평굿은 전라북도 중요 무형문화재 제78호 지정된 만큼 그 음악적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다.

좌도굿의 가장 기본이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두령쇠 가락으로 굴곡 있는 산의 조화처럼 투박하면서 깊으며, 빠르고 가락수가 많다. 진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성적인 힘을 바탕으로 한 굿판이 전 차베의 상모 웃음의 조화

로 박진감이 넘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풍년질굿, 갓은12마치로 시작을 알리는 마당판을 열어가며 품앗이굿으로 절정에 이르게 된다. 특히, 영산은 좌도가락의 꽃으로 마치고 소제사가 우는 자연의 소리를 담아 평온한 느낌을 전한다.

이번 놀이길 굿마당 행사가 진안의 명소인 마이산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진안중평농악의 흥과 멋을 선보이고, 관광객들과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전통농악놀이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진안중평굿보존회는 1992년 진안 성수면 중평마을에서 보존회를 결성하여 현재 진안전통문화전수관에서 중평굿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